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대상 마약류진통제 안전사용 요청
- 의료용 마약류 과다 사용 피부과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등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등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안내하고 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진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존·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상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 진통제는 최초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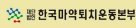
또한, 비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여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류 진통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는 6월 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취급·사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방량이 많거나 급증한 피부과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과다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p>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결음 마약류 상담센터”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1342용기한결음 마약류 상담센터</p>
--	---

식품의약품안전처  

#ADHD #살빼는 약 #나비약 #마약 #대마 #향정

**“마약 문제로 힘들 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고통스럽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1342**가 함께 할게요.

1342
당신의 일상 SOS 24시간 사이
통화내용 비밀보장!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은주 (043-719-2893)
		담당자	사무관	김지선 (043-719-2884)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책임자	팀 장	김희선 (043-719-2841)
		담당자	사무관	조우재 (043-719-2842)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10년 지켜온 국민안전, 100년 넘어갈 안심기준

국민이 만든
대한환의길

대한민국
지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